



비구니부 설치, 왜?

조계종 총무원 법장스님이 13일 교계 언론과 가진 간담회에서 총무원에 비구니부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법장스님은 "비구니부를 따로 두는 게 좋겠다는 여러 스님들의 견해를 고려해 현재 비구니부 설치에 필요한 입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배석했던 총무부장 성관스님과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비구니부 설치에 비구니에 대한 배려가 아닌 비구니의 인적 자원 활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승가 구성원의 과반이 비구니지만 종단 차원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종단에서 공식 기구를 만들어 조직체계를 세움으로써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나 사회 복지 같은 여성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분야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충분히 역할을 해 줄 경우 그만큼 종단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구니부 설치 추진에 따른 고민도 적지 않아 보였다. 법장스님은 "비구와 비구니의 계율이 엄연하고 승가의 오랜 관행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성관스님과 현고스님은 "비구니부 설치가 비구의 영역 침범으로 잘못 이해돼서는 곤란하며, 비구니의 활동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이자 종단지 활동 측면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법장스님과 총무원 집행부의 비구니부 설치에 대한 접근 방법과 인식은 바람직하다. 특히 비구 대 비구니, 다시 말해 세속적 개념의 성적 균형을 맞추겠다는 발상이 아니라 비구에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구니부 설치 유무가 핵심일 수는 없다. 비구니부 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복지 등 제반 분야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구니부를 설치해놓고 그 테두리 안으로 영역을 고착시킨다면, 이것이 오히려 또 다른 방식의 비구니 차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동해 삼척: (033)521-6293 영주: (054)634-3429 경남 동부: (055)353-1196



◇14일 부산영광사에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참회와 정진의 108배를 하며 생명사랑 실천을 다짐하는 스님들. 사진=고영배 기자

“자연환경수호 불교의 시대적 소명”

1만여 사부대중 고속철 천성·금정산 관동 전면 백지화 촉구

참회문 낭독·가두행진·108배로 생명사랑 다짐

‘천성산·금정산을 살리기 위해 38일간 이어온 지율스님 단식 정진의 정신을 지지하며 고속철 천성·금정산 관동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자연환경보전과 수행환경수호를 위한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성타스님)는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 환경 수호를 위한 불교도 정진대회를 갖고 경부고속철 대구-부산 구간 금정산·천성산 관동 백지화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7면

하유스님의 명고에 이어 38일간의 단식농성을 중단한 지율스님(내원사 산감)은 ‘생명에 대한 참

회문 낭독’이라는 영상편지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문제가 이 시대 주요 사회문제로 안고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천명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성타스님은 대화시를 통해 “만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참회와 생명을 위한 대서원에 사부대중이 일심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진대회에 참가한 1만여 사부대중은 “과과와 반대, 대립과 투쟁의 악순환을 넘어 이천만 불자와 모든 국민들이 생명사랑의 실천을 위해 정진하겠다”며 자연을 파괴한 공업(失業)을 참회하며, 환경수호

의지를 다지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정진대회는 쌍계사 조실 고산스님의 생명을 위한 지혜의 말씀에 이어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윤희동 신부, 최열 환경재단 이사, 법산스님 등의 주체연설, 생명을 위한 시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본 행사에 이어 전국의 제방선원과 주요 사찰에서 동참한 1천 여명의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시청을 출발, 서면까지 생명을 위한 참회의 행진을 벌이고 영광동에서 앞에서 참회와 정진의 108배로 생명사랑의 실천을 다짐하며 회향했다.

한편 범어사 통도사, 부산·경남

지역 시민종교대책위는 정진대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시민과 불자들의 뜻을 결집시키기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 △건설교통부 대안노선 제시 △부산노선 국정감사 △천성산·금정산 관동노선 백지화 등 4개항을 요구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지율스님 단식 끝내 서울서 이어 받아

지율스님의 부산시청 앞 단식농성이 14일로 끝난 가운데 15일부터는 조계사 앞 천마농성장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이 이어진다.

15일부터 16일까지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 세영스님과 안동 용수사 하유스님이, 17일부터 22일까지는 불교환경연대 조직실장인 법현스님이, 23일부터 25일까지는 운문사 승가대학 강사 해견스님이, 26일부터 31일까지는 화룡사 총무 성타스님이 이어받는다. 4월 1일부터는 운문사 승가대학 강사 세드스님, 화룡사 성환·지환스님, 망월사 주지 원산스님 등이 동참한다.

남동우 기자

“불교관련법 현실에 맞게 개정을”

법장 스님, 박희태 한나라대표 권한대행 접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12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권한대행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불교 관계 법률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3면

법장스님은 “잘못된 법률로 불교계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문화재보수도 정부에서 하청을 주는 방식 대신 사찰이 직접 관장하도록 해야만 실질적인 문화재보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장스님은 또 성보박물관 관리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명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원효종 종정 법흥·해인사 고봉 스님 입적

3월 14·15일 다비식



◇법흥스님



◇고봉스님

대한불교원효종 제10대 종정 해인당 법흥(慧隱堂 法弘) 대종사와 조계종 12교구 분사 해인사 선덕고봉당(果峰堂) 해웅(慧雄) 대선사가 10일과 13일 각각 입적했다. 관련기사 3면

10일 부산 금수사에서 입적한 법흥스님은 세수 89세 법랍 80세로, 1925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일우스님을 은사로, 운악스님을 계사로 득도한 이래 35년 영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고 건봉사, 월정사, 법주사, 대흥사 등 제방선원을 두루 거치며 수행에 전념했다. 63년 원효스님의 사상을 현대에 되살리는 생활불교를 표방하며 원효종을 장종했으며, 원효종 초대 총무원장과 8·9·10대 종정을 지냈다. 또 71년 해인사에서 득담스님으로부터 제10대 동국유사 전법을 받아 한국불교의 율맥을 이어왔다.

법흥스님의 영결식은 3월 14일 부산 금수사에서 종단장으로 치러졌으며, 다비식은 양산 통도사 연화대에서 1천여 대중에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13일 해인사 극락전에서 “서로 화합하여 중노릇 잘하라”고 당부한 뒤 입종계를 남기고 입적한 고봉스님은 세수 72세, 법랍 55세로 1931년 충주에서 출생해 17세에 해인사에서 영월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인곡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해인사 선원장, 조계종 교무부장, 중앙종회 의원 등을 역임했다.

영결식은 15일 해인사 보광당에서 산중장(山中葬)으로 봉행됐으며, 가야산 연화대에서 다비식이 거행됐다. 김원우·박봉영 기자

북한산 관동도로 등 백지화 공약

건교부장관 “현노선 포함 재검토”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산 관동도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금정산 구간 전면 백지화 공약(公約)이 공약(公約)으로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는 10일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공약대로 기존 노선을 백지화하고 다른 대안노선을 찾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해 기존 노선을 포함한 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8일 단식농성중인 지율스님을 찾은 문제인 청

와대 민정수석도 “백지화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현 노선을 포함해야 해당부서를 설득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해 농성장에 있는 사람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부장 성관스님은 “대통령의 불교계 10대 공약 중 첫 번째 공약대로라면 이 부분은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발상의 일대 전환 없이 문제해결은 어렵다. 통치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췌기를 박았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법장 스님 취임식 24일 조계사에서 열린다. 양종회의장 및 관공부 장관 축사 등으로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경

대한불교조계종 제 31대 총무원장 법장스님 취임법회

축

종단의 안정과 화합, 축하와 격려 속에서 제31대 총무원이 새로운 출범을 합니다. 뜻 깊은 자리에 수희 동참하시어 국민과 종도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종단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7(2003)년 3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조계사

대한불교조계종 제 31대 총무원장 법장스님 취임법회 준비위원장 성 관

문의 02)735-5861